

# KIA의 선택 동성고 김도영 ... '제2의 이종범' 기대

### 2022년 신인 1차 지명 ... 투수 문동주와 마지막까지 선택 고심 올해 타율 0.456 ... 빠른발에 장타력까지 겸비한 '5툴 내야수'

동성고 김도영(18)이 타이거즈의 마지막 1차 지명 선수가 됐다.

KIA 타이거즈가 전면드래프트 시행에 앞선 마지막으로 진행된 2022년 신인 1차 지명에서 내야수 김도영을 선택했다.

신장 182cm, 몸무게 81kg의 김도영은 공격과 수비, 주루를 모두 갖춘 내야수로 평가받는다. 정확한 타격 콘택트 능력을 가진 김도영은 특히 빠른 발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홈에서 1루까지 3.96초만에 도달할 정도의 스피드가 감점이고, 빠른 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루 센스도 가지고 있다.

김도영은 최근 끝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도 주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도영은 서울 신일고와의 대회 준결승전에서 2-3으로 뒤진 5회말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희생번트로 2루까지 향했다. 2루에서 리드를 많이 가져가면서 투수 견제에 걸렸지만 그대로 3루로 뛰어 도루를 만들었고, 서하은의 중견수 플라이로 홈에 들어오면서 동점 득점을 만드는 등 4-3 승리를 이끌었다.

마산고와의 대회 결승에서는 기습 번트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도영은 올해 21경기에 출전해 79타수 36안타(1홈런)로 타율 0.456, OPS 1.139, 17타점 22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5할대(0.531)의 출루율을 자랑하는 김도영은 17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상대를 흔들었다. 장타율 역시 0.608로 중장거리 타자로 거듭나고 있

다. KIA는 지명 마지막 순간까지 154km의 강속구를 뿌리는 진흥고의 특급 투수 문동주를 놓고 고심을 이어간 끝에 팀 내야수비-타선 강화를 위해 김도영을 선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프런트가 최종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최근 몇 년 간 가장 좋은 유망주로 평가받는 선수라고 들었다. 모든 톨을 갖춘 선수로 알고 있다. KBO리그에 적응하는 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야구 본능, 감 자체가 좋은 선수라는 보고를 받았다. 팀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이고, 활용 가치 높은 포지션도 맡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동성고 김재덕 감독도 김도영을 '5툴 선수'로 꼽으면서 제자의 1차 지명을 반겼다.

김재덕 감독은 "프로 마지막 1차 지명 선수가 된 것을 축하한다. 학교도 영광이고 감독 개인적으로도 1차 지명 선수를 배출해서 영광이고 고맙다"며 "프로 가서 막둥이니까 다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선배들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훌륭한 선수가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도영은 인성까지 더해 6툴 선수"라며 "지금까지 이렇게 빠른 선수는 본 적이 없다. 빠른 것도 있지만 순발력도 좋다. 타격 주력은 지금도 뛰어난 선수이지만 수비 부분도 그렇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프로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야구를 이끌어 나갈 좋은 내야수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영이 23일 광주시 남구 동성고에서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채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 벤투호, 월드컵 최종예선 손흥민 포함·이강인 제외

### 스트라이커 조규성 첫 발탁 9월 2일 이라크와 1차전

'최정예 벤투호'에 스트라이커 조규성(김천 상무)이 처음 발탁됐고 이강인(발렌시아)은 뽑히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3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9월 A매치 기간 치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경기에 나설 26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나상호(서울), 송민규(전북) 등 해외파와 국내파를 망라한 한국 축구 최정예 공격진이 가동되는 가운데 소속팀에서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강인은 제외됐다.

이강인은 2019년 9월 A매치 기간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승선한 뒤 꾸준히 선발돼왔다. 지난 3월 일본과 평가전에서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이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 이번 소집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의 신체적 피로도 등을 배려한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평가한 결과 선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반면, 올림픽 대표팀에 꾸준히 뽑혔으나 최종 명단에 들지는 못했던 조규성이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조규성이 A대표팀에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투 감독은 조규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재능도 좋다"고 평가하면서 "대표팀에 녹아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또 전날 소속팀 경기에서 허벅지가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인 손흥민에 대해서는 "컨디션이 좋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비진과 골키퍼진 면면은 큰 변화가 없었다. 6월 2차 예선을 앞두고 처음 대표팀에 선발됐던 이기재(수원)가 또 한 번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은 가운데 터키 명문 페네르바체에 입단해 빠르게 적응하는 김민재가 예상대로 뽑혔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울산과 전북이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벤투 감독은 울산에서는 3명, 전북에서는 2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벤투 감독은 지난 2차 예선을 앞두고 울산에서 5명, 전북에서 1명을 뽑는 등 그간 울산에서 전북보다 훨씬 많은 선수를 뽑아 울산 팬들로부터 원망받았다.

벤투호는 9월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이어 9월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최종예선 2차전을 펼친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주축에서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A조에 묶였다.

### 9월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벤투호 선수 명단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1~2차전  
• 9월 2일 이라크(서울월드컵경기장)  
• 9월 7일 레바논(수원월드컵경기장)

<b>FW</b>
황의조(보르도), 조규성(김천)
<b>MF</b>
정우영(알 사드), 손준호(산둥 타이산), 황인범(카잔), 이재성(마인츠), 권창훈(수원), 남태희(일두하일), 이동경(울산), 손흥민(토트넘), 나상호(서울), 황희찬(라이프치히), 송민규(전북)
<b>DF</b>
김영권(감바 오사카), 김민재(페네르바체), 박지수(상무), 권경원(성남), 정승현(김천), 김문환(LAFC), 이용(전북), 강상우(포항), 홍철(울산), 이기재(수원)
<b>GK</b>
조현우(울산), 김승규(가시와 레이슬), 구성용(김천)

6개 팀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풀리그를 치르고, 각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각 조 3위 팀끼리는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22일 올버햄프턴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원정경기에서 앞서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긴 '한쪽 무릎 꿇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FC, 김원식·헤이스 앞세워 3연승 노린다

### 오늘 안방서 성남과 27라운드

에너지를 충전한 '주장' 김원식과 '살림꾼' 헤이스가 안방에서 3연승을 이끈다.

광주는 24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1 2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난 광주는 앞선 대구 원정에서는 2-1 역전승을 이루면서 연승을 만들었다.

두 경기 모두 의미 있는 승리였지만 특히 분위기를 바꾼 인천전이 중요했다.

벼랑 끝 승부에 나선던 광주는 이날 인천과 33개의 파울을 주고받는 혈투를 펼쳤다. 주장 김원식이 중원에서 기싸움을 벌이면서 선

수단을 이끌었고, 헤이스는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공수에서 역할을 해냈다.

헤이스는 전반 종료 직전 엄지성이 얻어낸 페널티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 득점에도 성공했다. 이후 광주는 인천의 공세를 막으면서 1-0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 두 사람은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느라 인천전에서 경고카드를 받았고, 지난 대구전을 쉬어갔다.

핵심 선수들의 공백에도 광주는 '막내' 엄지성이 맹활약에 연승을 이뤘다. 덕분에 김원식과 헤이스는 에너지 충전을 끝내고 3연승 도전 전면에 서게 됐다.

하위권 경쟁팀인 성남과의 대결인 만큼 잔류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노련한 두 사람이 다시 전력에 가세했고 최근 분

위기도 좋다.

엄지성이 대구 원정에서 골을 기록하는 등 후반이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또 광주는 앞선 대구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을 만드는 등 득점력도 높였다.

알렉스-이한도 센터백 듀오의 환상의 호흡 속 골키퍼 윤영국은 동물적인 슈퍼세이브를 잇달아 선보이며 수비도 견고하다.

또 이찬동과 엄원상도 부상에서 복귀하는 등 광주는 최상의 분위기에서 최고의 전력으로 3연승 도전에 나서게 됐다.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무기로 하는 광주가 김원식과 헤이스를 앞세워 파죽의 3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팀명 'AI PEPPERS'

### 광주 연고 ... 엠블럼 공개

여자 프로배구 신생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이 23일 팀명을 'AI PEPPERS'로 확정하고 엠블럼을 공개했다.

<사진>

구단에 따르면 'AI'에는 데이터 기반의 경기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최고의 배구단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연고지인 광주시와도 연관이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광주시는 인공지능(AI)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AI 중심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런 광주시의 동반자이자, 지역 겨울 스포츠의 상징이 되겠다는 의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PEPPERS'는 선수단과 코치진, 페퍼저축은행 임직원, 광주시민 그리고 배구단을 응원하는



팬들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나가는 소망을 담았다.

'AI PEPPERS'의 엠블럼 역시 배구와 인공지능의 결합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상단에는 페퍼저축은행, 하단에는 광주시의 영문 명칭을 새겼고, 중앙에는 'AI PEPPERS' 로고를 배치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엠블럼은 페퍼저축은행을 상징하는 강렬한 레드컬러 배구공 안에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